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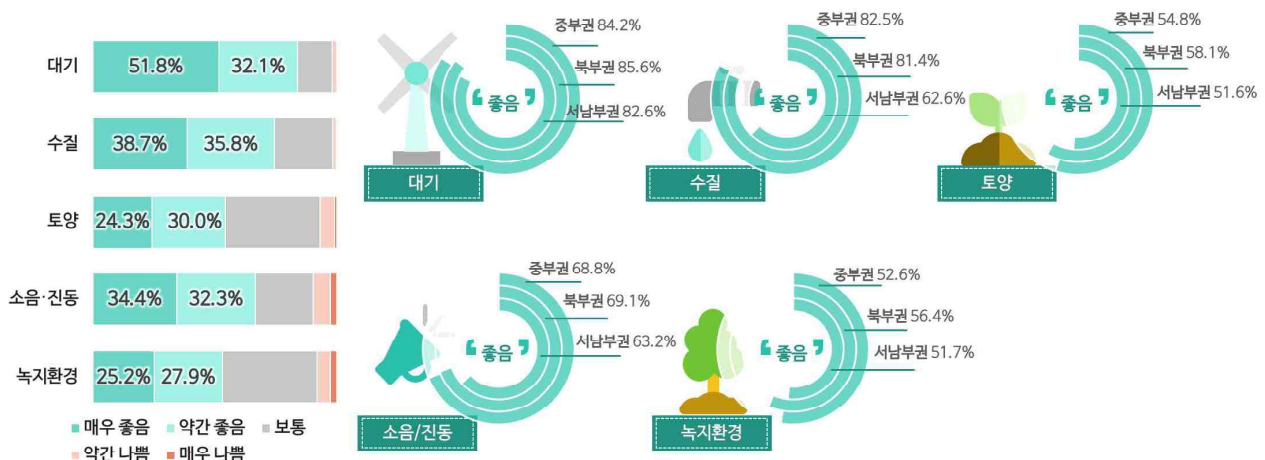
8 환경

1) 현재 체감환경 (공통)

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중 '대기(83.9%)' 가 가장 좋다고 느낌

-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서 「좋음」으로 느끼는 분야는 '대기'가 83.9%로 가장 높고, '수질(74.5%)', '소음·진동(66.7%)', '토양(54.4%)', '녹지환경(53.2%)' 순으로 나타남
- 대기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83.9%, 「나쁨」 1.7%로 나타남
 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상대적으로 북부권(85.6%)이 중부권(84.2%)과 서남부권(82.6%) 보다 「좋음」이 높게 나타남
- 수질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74.5%, 「나쁨」 1.7%로 나타남
 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상대적으로 중부권(82.5%)이 북부권(81.4%)과 서남부권(62.6%) 보다 「좋음」이 높게 나타남
- 토양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54.4%, 「나쁨」 6.9%로 나타남
 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상대적으로 북부권(58.1%)이 중부권(54.8%)과 서남부권(51.6%) 보다 「좋음」이 높게 나타남
- 소음·진동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66.7%, 「나쁨」 9.6%로 나타남
 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상대적으로 북부권(69.1%)이 중부권(68.8%)과 서남부권(63.2%) 보다 「좋음」이 높게 나타남
- 녹지 환경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53.2%, 「나쁨」 7.9%로 나타남
 - 지역별로 살펴보면, 북부권(56.4%)이 중부권(52.6%)과 서남부권(51.7%) 보다 「좋음」이 높게 나타남

〈그림 8-1〉 현재 체감환경



〈표 8-1〉 현재 체감환경

(단위: %)

	계	좋음	나쁨		보통	나쁨	약간 나쁨	매우 나쁨
			매우 좋음	약간 좋음				
대 기	100.0	83.9	51.8	32.1	14.4	1.7	1.7	-
중 부 권	100.0	84.2	52.9	31.3	15.1	0.7	0.7	-
북 부 권	100.0	85.6	43.9	41.6	12.5	1.9	1.9	-
서 남 부 권	100.0	82.6	55.7	26.9	14.8	2.6	2.6	-
수 질	100.0	74.5	38.7	35.8	23.9	1.7	1.5	0.1
중 부 권	100.0	82.5	47.3	35.1	15.3	2.2	2.2	-
북 부 권	100.0	81.4	44.1	37.3	17.9	0.6	0.6	-
서 남 부 권	100.0	62.6	27.0	35.5	35.7	1.7	1.4	0.3
토 양	100.0	54.4	24.3	30.0	38.7	6.9	6.1	0.8
중 부 권	100.0	54.8	23.3	31.5	36.7	8.4	7.0	1.4
북 부 권	100.0	58.1	33.9	24.2	34.3	7.5	7.3	0.2
서 남 부 권	100.0	51.6	19.4	32.2	43.2	5.2	4.5	0.7
소 음 · 진 동	100.0	66.7	34.4	32.3	23.7	9.6	7.0	2.6
중 부 권	100.0	68.8	42.3	26.4	24.0	7.2	6.5	0.7
북 부 권	100.0	69.1	34.6	34.6	22.2	8.6	8.4	0.2
서 남 부 권	100.0	63.2	26.8	36.4	24.3	12.5	6.6	6.0
녹 지 환 경	100.0	53.2	25.2	27.9	39.0	7.9	5.4	2.5
중 부 권	100.0	52.6	26.8	25.8	43.2	4.2	4.2	-
북 부 권	100.0	56.4	27.9	28.4	27.6	16.0	8.2	7.8
서 남 부 권	100.0	51.7	22.1	29.6	42.0	6.3	4.8	1.5

자료: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

2)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기타

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량 매립 2.9톤/일, 소각 21.9톤/일, 재활용 15.4톤/일

-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(매립, 소각, 재활용)는 40.2톤/일
 - 「매립」 2.9톤/일으로 2010년 대비 5.1톤/일 감소
 - 「소각」 21.9톤/일으로 2010년 대비 1.1톤/일 증가
 - 「재활용」 15.4톤/일으로 2010년 대비 3.9톤/일 증가
-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 구성비는 「소각」 54.5%, 「재활용」 38.3%, 「매립」 7.2%로 나타남

〈그림 8-2〉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현황



〈표 8-2〉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현황

(단위: 톤/일)

	계	매립	소각	재활용
2010년	40.3	8.0	20.8	11.5
2011년	42.1	3.6	26.0	12.5
2012년	44.0	3.3	24.1	16.6
2013년	42.3	3.1	22.4	16.8
2014년	40.2	2.9	21.9	15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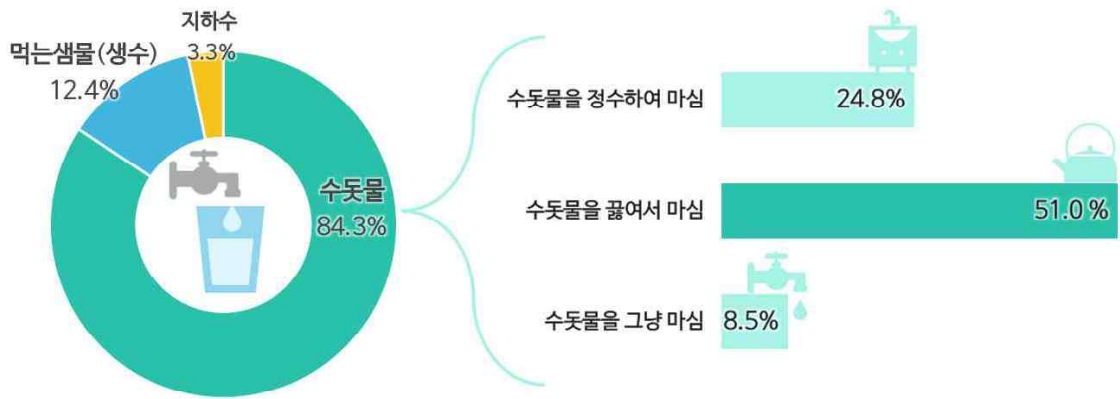
자료: 환경부,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 각년도

3) 식수 이용 실태(가구주) [특성]

가정에서 마시는 물, 「수돗물을 끓여서 마심(51.0%)」이 가장 높음

- 「수돗물」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는 84.3%이고, 다음으로 「먹는 샘물(생수)을 사서 마심(12.4%)」, 「지하수를 마심(3.3%)」 순임
-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 중 「수돗물을 끓여서 마심」은 전 권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, 「수돗물을 그냥 마심」은 서남부권(10.8%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
〈그림 8-3〉 식수 이용 실태(가구주)



〈표 8-3〉 식수 이용 실태(가구주)

(단위: %)

연도	계	수돗물 이용				먹는 샘물(생수)을 사서 마심	지하수를 마심	기타
		수돗물을 마심	수돗물을 그냥 마심	수돗물을 끓여서 마심	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심			
2016년	100.0	84.3	8.5	51.0	24.8	12.4	3.3	-
중부권	100.0	83.4	7.4	52.3	23.8	12.3	4.3	-
북부권	100.0	77.5	6.6	43.0	27.8	16.5	6.0	-
서남부권	100.0	89.4	10.8	54.8	23.8	10.0	0.6	-
남자	100.0	83.9	8.6	45.7	29.6	12.4	3.8	-
여자	100.0	85.7	8.4	68.3	9.0	12.6	1.7	-
15~29세	100.0	100.0	-	-	100.0	-	-	-
30~39세	100.0	79.8	3.2	43.2	33.4	20.2	-	-
40~49세	100.0	83.7	5.0	37.0	41.7	15.2	1.1	-
50~59세	100.0	80.9	5.8	35.7	39.4	14.1	5.0	-
60세 이상	100.0	86.2	11.4	63.0	11.8	10.3	3.5	-

자료: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